

일본인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비판적 읽기¹⁾

박정의(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정혜온(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1. 서론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은 일반적으로 결혼이주인을 주류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거나 동화시킴으로써 사회적 갈등 상황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한국어 과정’과 ‘한국사회 이해과정’으로 구성되어, 한국사회의 적응과 동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이주인이 일방적으로 우리문화로 편입되고 동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 들어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이주인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교통하고 공존 가능한 형태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조용만 & 박성범, 2013; Ireland, 2004; Lister et al, 2007). 즉 결혼 이주인의 동화적 문화적응을 전제로 한 사회통합에서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원적 사회통합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논의이다. 결혼이주민들이 경험하게 되는 두 개의 문화, 모국의 고유문화와 이주국의 주류문화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 ‘통합’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주인이 그들만의 문화를 지켜가는 것을 인정 하고 장려하며, 정책목표 또한 동화가 아닌 공존에 두게 된다.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스웨덴 등은 정부 정책으로써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김대균, 2011).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사회통합은 베리가 제시하고 있는 문화적응(acclutration)의 유형 구분에서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 베리에 의하면, 문화적응(acclutration)은 이주인의 모국문화 유지와 이민사회의 주류문화로의 편입에 따라 동화(Assimilation), 통합(Integration), 분리(Segreg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모국문화의 문화적 정체감과 특성도 유지하는 문화적응 전략은 통합(Integration) 유형으로 분류하며, 개체가 주류사회와의 관계는 유지하지만 모국문화의 문화적 정체감과 특성을 포기하는 경우는 동화(Assimilation) 유형으로 분류한다. 또한 주류사회와의 관계는 유지하지 않고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 하는 분리(Segregation) 유형, 주류사회와의 관계도 유지하지 않으며 동시에 모국 문화와의 접촉도 거부하는 주변화(Marginalization) 유형을 제시한다(Berry, 1997). 즉, 결혼 이민여성의 문화적응 과정에는 모국문화정체성과 한국문화정체성이 동시에 작용하며, 이들은 두 문화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모국문화정체성이 강할수록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주문화에 적응함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권복순, 2009). 또한, 문화적응의 네 가지 유형 중 통합

1) 본 원고는 미완의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일부입니다.

유형은 가장 이상적인 문화적응 사례로 보여지며, 이주민들이 자신을 이주국의 국민으로 인식하고 이주국의 국민들이 그들을 한 나라의 국민으로 동등하게 대우할수록 이주민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mit, 2009; 장은애, 2010).

이처럼 이주민들의 문화적응은 사회통합과정의 일환인 것이다.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주민의 한국 문화에의 적응은 대인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자아존중감, 개인의 한국어 능력, 체류기간, 문화정체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정의 & 성지연, 2013), 이들 중에서도 한국어 능력은 문화적응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법무부가 진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도 ‘한국어’과정과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두 축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을 맥락없는 한국어 교습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어 읽기가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일어나야 보다 효율적인 사회통합의 기반을 제공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글 읽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마치 진공상태 속에서 이뤄지는 언어교육과 같다. 그러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차원에서 읽기 교육은 맥락 안에 위치되어지는 비판적 읽기의 형태를 담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읽기는 문자 해독 이외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읽는 이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활동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읽기는 읽는 사람 혼자만의 독백적인 활동이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협의적 상호 활동이라는 점에 주지해야한다. 현재의 읽기 교육은 이주민이 문자를 해독하고 정보를 얻는 데 적절하겠지만 그들이 그 행간을 찾아내고 메 췌 나가는 협의적 활동을 진행하는 데 유효한지 여부는 의문시 된다. 비판적 읽기, 화자와 청자사이의 담론싸움이 가능한 읽기 교육이야말로 이주민들의 문화적응에 방향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어 능력이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이수범, 2009; 조창환 & 성윤희, 2010; 최경린 & 박정의, 2011), 여기서 한국어 능력은 단순한 한국어 읽기와 듣기를 지칭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체류기간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문화적응과정에서 비판적 읽기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문화적응유형, 동화, 통합, 주변화, 분리와 비판적 읽기의 실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사회통합차원에서의 읽기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일본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미디어 이용 양태

연구문제 2: 일본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읽기의 실제

2. 연구방법

일본인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미디어 읽기의 역할을 조사하기 위해, 인천에 거주하는 일본인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의 선정은 눈덩이 표집

(snowbal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주로 2014년 인천시 다문화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일본인 어머니와 그들을 통해서 소개받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지인들이 대상이 되었다.

인터뷰에는 일본인 결혼이주 여성 14명이 참여하였고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차 인터뷰에서 일본인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변용 유형을 조사하였고, 2차 인터뷰에서 문화변용 유형별 미디어 이용 양태와 읽기의 특징을 심화하여 조사하였다. 2차 인터뷰에서 읽기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신문의 사설²⁾을 제공하였고, 이를 읽고 내용을 이해했는지, 저자의 의도를 파악했는지,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어떠한지의 세 단계 이해력을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1차와 2차의 인터뷰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답변의 성실함이 부족한 2명의 인터뷰 자료는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총 12개의 자료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1차 인터뷰 기간은 2014년 8월 1일 ~ 2014년 8월 31일 사이였으며, 2차 인터뷰 기간은 2014년 10월 1일 ~ 2014년 10월 20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각 회차별 평균 인터뷰 시간은 20~30분 정도이며, 모든 경우 개별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표 1> 심층 인터뷰 대상자

구분	나이	직업	거주 기간	결혼 기간	자녀 수	종교
A	55	주부	26	26	3	통일교
B	44	주부	17	17	2	통일교
C	43	주부	15	15	4	통일교
D	35	주부	11	11	4	통일교
E	45	주부	17	19	4	통일교
F	45	주부	15	13	1	통일교
G	40	일본어강사	12	12	2	통일교
H	42	주부	14	14	3	통일교
I	41	주부	13	13	4	통일교
J	36	주부	12	12	2	통일교
K	48	일본어강사	15	15	1	통일교
L	48	연구원	19	20	1	천주교

인터뷰 대상자의 특성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는 35세부터 55세 까지였으며, 결혼 기간과 자녀의 수는 각각 다양했다. 그러나 종교의 경우는 천주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일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거주 기간은 모두 10년 이상이었다.

2) 동아일보 사설 “2030년엔 이민자가 300만 명이나 필요하다는데...”. 2013년 1월 3일자.

3.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 일본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변용 유형에 따른 미디어 이용 양태

분석의 대상이 된 12명의 일본 어머니의 문화변용 전략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동화’의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2명, ‘위장된 동화’가 3명, ‘분리’의 성향은 4명, ‘통합’의 성향이 3명으로 나타났다.

<표 2> 일본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변용 유형

문화변용 유형		대상자
동화	완전한 동화주의자	A, B
	위장된 동화주의자	C, D, E
분리		F, G, H, I
통합		J, K, L

첫째, 동화전략의 경우,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 문화와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등의 환경에 의해 한국 문화에 동화된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A와 B가 이에 해당한다. A는 결혼 26차의 주부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자녀 양육을 위해 가정에서 철저하게 한국어를 사용하였으며, 언어 외에 다양한 문화적 요소에 있어서도 한국의 방식을 따르는 전형적인 ‘동화’의 유형이다. 자녀들과 함께 TV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들을 시청하기도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한다. 가정에서 종이신문을 구독하여 매일 살펴보고, 추가로 인터넷 신문의 기사들도 매일 검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 독서 효능감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노력에 비하여 글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어 기사를 읽고 일본어 기사를 찾아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A(55): 이 나라(한국)에 가서 내가 잘 하려면 그만큼 잘 해야 하고, 일본어를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어나 음식, 생활 방식 등을)한국식으로 했어요. 세계일보(종이신문) 보거든요. 그걸로 무슨 일이 있는지 훑어보고... 매일요. 인터넷은 매일 봐요, 무슨 일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봐요)... (한글 기사를 읽고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일본 인터넷을 뒤져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아무래도 (한국어를 읽고 이해하는 정도가) 좀 느리고, 나이가 있으니깐... 이해하는 것도 보통이거나 좀 더 아래...

B는 결혼 17년차의 주부로 일본보다는 한국의 정서가 자신과 더 잘 맞고 자신의 성격이 한국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대답하였다. 한국에 적응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고, 한국의 문화가 자신에게는 더 편하게 느껴진다고 대답한 ‘동화’의 유형이다. TV 드라마나 뉴스 등을 자주 시청하며, 매일 모바일

검색을 통하여 연예뉴스, 날씨,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둘러보는 시간이 많다. 종이신문을 구독하지만 요즘은 잘 읽지 않고, 인터넷 신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한다. 한국의 방송과 신문을 자주 읽기 때문에 한국어를 읽는 정도나 이해 정도는 다른 일본인 이주 여성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2명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지 않았기에 사춘기에 접어들 자녀들과의 속 깊은 대화가 어려운 점이 가장 아쉽다고 하였다.

B(44): (자녀들에게) 일본어를 능숙하게 못 가르쳐서 너무 아쉬워요. 이제 사춘기가 오는데 아이한테 한국말로 하려고 하니까 답답해서 말을(시원하게 다 못 하니까 아쉬워요). 그냥 원래 성격이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편해요. 드라마랑 뉴스랑 매일 봐요, 매일... 하루에 두 시간 정도? 더 볼 때도 있고... 신문은... 세계일보 보는데, 요즘은 좀 뜸해요, 잘 안봐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걸로(모바일) 검색하고... 뭐 무슨 일이 있나 연예인들 얘기도... 날씨 보고... 뭐 무슨 사건같은 거, 사고 났다든가 (그런 것들 찾아서 봐요)...

위의 두 사례와 비슷하게 일상생활에서는 ‘동화’의 유형을 보이는 듯하지만 성격이 조금 다른 변형된 문화변용 전략을 보이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위장된 동화 유형’으로,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자녀의 교육과 사회적 적응 등을 이유로 한국의 문화에 동화되어 사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이다. C, D, E가 이에 해당한다. C는 4명의 자녀를 둔 결혼 15년차의 주부이다. 자녀들 교육을 위해 가정에서 한국어를 전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언어 능력이 뛰어난 편이라 한국어도 쉽게 느껴진다고 대답하였다. 한국의 드라마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자주 하는 편이며, 한국어 읽기의 속도도 빠른 편이고 이해 능력도 높은 편이라고 대답하여 한국어 독서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43): (한국어 발음이 참 좋으시네요?) 제가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귀가 조금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따라하기가 다른 엄마들과 비교해서 더 잘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잘 못랐는데 여기 와서 생활하다보니까, 저는 발음 같은 게 금방 들리고 따라하고 그러는데 다른 분들은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큰 애에게 일본어를 하다가 유치원에 보냈을 때, 말이 좀 느려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그 때부터 한국어로 바뀌서 계속 그러다보니까 큰 애도 한국어, 둘째도 이렇게 계속 (한국어만 사용하게 되었어요)... 집에서 신문은 안보고, 드라마는 봐요. 뉴스도... (드라마는) 한국 것, 사극 좋아해요. (일본 드라마는 안 보시나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나면 한국 것 챙겨보게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검색해서 읽어요. 15분 정도, 그냥 화면에 있는 거, 관심 있으면 읽어요.

D는 결혼 11년차 주부이며 4명의 자녀가 있다. 한국의 문화에 동화된 모습을 보이지만, 한국 사람들의 질서 의식과 규범 준수 태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사람들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민족적 성향 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있으며, 일본인으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남편에 대한 배려와 자녀 교육을 위하여 한국의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는 변형된 동화 유형을 보였다. TV 드라마와 홈쇼핑 시청을 즐기며, 뉴스도 조금씩 시청한다. 종이신문은 보지 않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 검색을 통해 주요 이슈들을 찾아서 보는 편이다. 한국어에 대한 독서 효능감에 있어서는

읽는 속도는 비교적 느린 편이지만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D(35): 애기 아빠(남편)가 일본어를 전혀 모르니까... 일본 말 하면 애기 아빠가 불편할까봐, 소외감 느낄까봐, 그럴까봐 한국어로만 (자녀들을) 키웠어요. (한국에 온 지) 10년이 지나도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 이에요. (평소에 TV는) 자주 봐요. 드라마하고 홈쇼핑, 못사는데 보는 재미가 있어서... 뉴스도 조금씩 봐요. (하루에 TV 시청시간은)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사이 (일주일에 1~2번 정도).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이 만화보고 있으니까... 신문 안 봐요. 옛날에 종이 신문 봤었는데... 인터넷으로 봐요.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주로 봐요). TV보다는 인터넷으로 뉴스 많이 보고, 스마트폰으로도 봐요. 매일 20~30분 이상...

E는 결혼 17년차 주부로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한국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정 내에서 전적으로 한국어만을 사용하고 한국 생활 방식을 고집하고 있었다. 일본 문화나 소식이 그렇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속해있는 한국식을 따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 TV 시청을 많이 하고, 종이신문을 매일 읽으며 기사와 사설 등을 검색한다. 한국어 독서 효능감이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 글을 읽는 속도도 빠른 편이며 내용에 대한 이해력도 다른 이주 여성들보다 훨씬 높다고 대답하였다.

E(45): 엄마가 한국어 못하면 나중에 뭐랄까 소통이 어렵다고 해야 하나... 엄마가 말을 못하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바깥사람하고 소통도 못하고 그러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어 (한국어를 사용해요)... (일본) 소식을 들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당장 나와 상관있는 부분이 아니니까(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한국 TV는) 드라마나 뉴스도 보고, 예능도 좋아해요, 자주 봐요. (TV 시청 시간은) 하루에 한 두 시간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매일... 세계일보 봐요, 매일. (주로 어떤 것을 읽으시나요?) 기사도 찾아서 보고... (사설 같은 것도 읽으시나요?) 네, 사설, 그런 것도 찾아서 읽어요... (인터넷 신문은 보시나요?) 아뇨, 전혀 안봐요... 신문도, 검색도, 인터넷은 전혀 (보지 않아요)...

위에서 살펴 본 5명은 모두 ‘동화’의 유형에 속하지만 이를 다시 두 가지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A와 B의 경우 언어와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사고나 정체성에 있어서도 한국식에 동화되어 있는 ‘완전한 동화주의자’이다. C, D, E의 경우는 언어나 생활 방식은 한국식을 따르고 있지만 이는 한국에서 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외적 양상이며, 내적 인식과 정체성에 있어서는 일본의 것을 유지하는 ‘위장된 동화주의자’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한국의 대중 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양상을 보였고,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 등을 이용한 신문 읽기에도 적극적이다. 나이가 많아 어려움을 느낀다는 A를 제외하고는 한국어 독서 효능감이 보통 수준 혹은 더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분리유형으로,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고 일본식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이다. F, G, H, I가 이에 해당한다. F는 한국 거주 15년차 주부로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한국의 생활 문화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일본식 생활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남편은 지방 근무 때문에 떨어져 지내고 자녀와 둘이 생활

하기에 일본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가 어려워서 일본 방송만 시청하며, 신문 등 문자를 읽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한국어 독서 효능감은 매우 낮았는데, 한국어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배우고자 하는 의사도 없었다.

F(45): 아이는 여기서 살았으니까... 급식도 한국 음식이고, 그러니까 나보다 한국 음식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안 좋아서 별로 안 만듭니다. 한국말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하고, 드라마 텔레비전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싫어서... ~~그래도 참고 들어보고 해야 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한국 방송을 보거나 듣지 않아요).~~ 일본 텔레비전 인터넷으로 보고, 인터넷도 일본말만 보고, 그러니까 더 한국말을 못해요. (한국 방송은) 아침에 뉴스 틀고 날씨만 (봐요). (신문은) 전혀 안봐요, 읽는 거는 싫어가지고...

G는 결혼 12년차의 주부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일본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사용하지만,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고 현재의 일본 국적을 바꿀 의사와 필요를 못 느낀다고 강조하기도 한 전형적인 '분리' 유형이다. TV는 전혀 보지 않고 일본 방송을 DVD로 보며 NHK를 시청하곤 한다. 종이신문은 보지 않고 인터넷 기사 검색을 통해 주로 일본의 소식을 접하는 편이다. 한국어 독서 효능감은 보통 수준이라고 답변하였는데, 한국 미디어의 접촉 정도는 낮지만 직업 때문에 한국어를 접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G(40): 평소에는 회사를 다니니까 한국인들과 생활은 하지만 직장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편한 만남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작은 아이를 낳았을 때 일본에서 낳았는데, 4개월 동안 일본에 살았으니까 그 때(자녀들이) 많이 (일본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1년에 한 번은 일본 친정에 가니까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으면 좋고... (TV는) 집에서 아예 안봐요. DVD는 집에 있으니까... 일본 것이라든지, 디즈니 (등을 봐요). (뉴스도) 전혀 안봐요, 그래서 아빠(남편)는 신문이라도 좀 보라고도 하는데 (안봐요). 뉴스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에서... (기사 검색 정도로?) 네네... (인터넷 기사 검색을 할 때에도) 일본 것이 많지요, 메일 같은 거는 한국이지만(한국어로 된 메일을 주고받지만)...

H는 한국 거주 14년차 주부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아직도 한국 문화에 적응이 안 되고 불편하며 그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하였다. 일본 방송만 시청하는 등의 환경 때문에 자녀들도 일본어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종이신문은 보지 않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일본 기사 등을 매일 찾아보지만, 한국의 기사 등은 지인들이 이야기 해 주는 것을 듣는 정도라고 한다. 한국어 읽기 속도가 빠르고 이해 능력도 높다고 응답하여 한국어 독서 효능감은 높은 편이었지만, 실제 이해 능력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났다.

H(42): 형님(손 위 동서)은 일본 사람이고, 동서(손아래 동서)는 일본에 가이드(여행 안내 직업)로 많이 다니니까 일본어를 잘해요. 그래서 며느리끼리는 일본어만으로도 통해요. (이제 한국 사람이 다 됐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일본에 계신) 우리 부모를 위해 일본 사람으로서 살겠죠. 집에 TV가 없어요. TV 자체를 아예 안 봐요. 휴대폰으로 뉴스는 보고... 일주일에 한번 볼까 말까... 나머지는 그냥 인터넷으

로 올라온 유튜브나 그런 걸로 올라와 있는 것만 (봐요). (일본 방송은) 인터넷으로 (봐요). (인터넷으로 찾아 보는 것은) 일본 기사죠.

I는 결혼 13년차의 주부로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거나 동화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분리’ 유형이다. 자녀들에게 일본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싶지만, 자녀들이 늘어나 한국에서의 양육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한국 TV 방송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은 없고, 가족들이 볼 때 다른 일을 하며 듣는 정도이다. 종이신문은 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주로 일본 기사를 검색해서 보는 편이다. 한국어를 읽는 속도는 느린 편이고 내용 이해 능력은 다른 이주 여성들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호소하였다. 첫째 자녀는 어릴 때 일본을 오가며 생활했기 때문에 저학년까지 한국어 읽기 능력이 낮은 편이었고, 둘째 자녀 역시 저학년까지는 한국어 읽기 능력이 뒤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둘째 자녀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수업 지도가 실시되었고, 여기서 국어 공부를 한 것이 읽기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 다섯 살인 셋째 자녀는 언어 장애가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넷째는 아직 백일 정도의 갓난아기이다.

I(41): (큰 아들이) 어릴 때는 1년에 한 번은 (일본 친정에) 가서 3개월 ~ 4개월 그쪽에서 지내고 왔는데,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이쪽(한국)에서 공부가 있으니까, 많이 지내지 못하죠. 저는 일본사람이고요. 제가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해서 꼭 한국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 소식) 궁금한게 있으면 일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기사 검색을 할 때) 한국 거는 조금, 일본 거를 대부분 (찾아서 봐요).

위에서 살펴 본 4명은 ‘분리’의 유형이다. 이들은 모두 한국의 대중 매체를 거의 접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방송을 찾아보는 경우가 많다. 모두 종이신문을 보지 않았으며, 인터넷 신문 등을 이용하여 일본의 기사 검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H를 제외하고는 한국어 독서 효능감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이 없었는데, H의 경우도 효능감은 높지만 실제 읽기 능력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특히 F의 경우 전형적인 ‘분리’ 유형으로 한국어 독서 효능감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통합유형이다. 한국의 문화와 일본의 문화에 대한 경계 의식이나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두 문화의 조화를 추구하는 경우로, J, K, L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일본의 방식을 고집하거나 한국의 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생각과는 달리, 문화에 대한 상대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포용력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J는 한국 거주 12년차의 주부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대학 시절부터 참여한 종교 행사에서 다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한일 교류행사가 많았는데, 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자주 접할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나 일본 문화와의 분리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국어 사용에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 그 외에는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한국의 방식과 일본의 방식을 고르게 반영하여 가르치고 있다. TV 드라마를 자주 시청하며 뉴스도 가끔 보는 편이다. 종이신문은 보지 않고 모바일 기사 검색을 가끔 하지만 그 빈도는 매우 낮다. 한국어 독서 효능감은 보통 수준으로 답변하였다.

J(36):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에) 거의 100% 만족해요. 언어 외에는 딱히 (한국에서의 생활이 불편한 것이 없어요). (자녀 양육은 일본과 한국 문화를) 반반으로 해요(가르쳐요). 시댁에서도 반대를 안 하니까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드라마를 많이 봐요. 뉴스는 드라마에 비하면 반 정도? 안보는 날에는 거의 안 보고,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을 때에는 챙겨보고... (드라마 이외의 프로그램은) 거의 보지 않아요. 스타킹(예능 프로그램)은 가끔 봐요. 신문은 안 봐요. 가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신문을 봐요).

K는 결혼 15년차의 주부이며 1명의 자녀가 있다. 직업은 일본어 강사인데,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일본어를 가르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를 좋아하게 되었고, 지금은 스스로 일본어를 배워나가고 있다고 한다. 젊었을 때부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활도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다. 좋아하는 TV 드라마를 자주 시청하지만 뉴스는 어려워서 잘 안 본다고 응답하였다. 종이신문은 보지 않으며 인터넷으로 기사를 검색하거나 뉴스를 가끔 보기도 한다. 한국어 읽기 속도는 느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해 능력도 보통 정도라고 응답해 한국어 독서 효능감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48): (자녀를 양육할 때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사용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본 쪽으로도 (역사를) 배웠지만 한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한국의 문화나 일본의 문화를 고르게 수용하면서 살아요. 저는 TV를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으면 계속 보는 편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주로 인터넷으로 많이 해요. 뉴스도 잘 안 봐서... 그런데 중요한 뉴스는 다르죠. 그런 것만 (봐요). (종이신문은) 없어요. 인터넷으로 뉴스를 가끔씩...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 (인터넷 검색을 할 때) 뉴스는 언어가

미국 뉴스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찾아 읽는다. 꼼꼼하게 글을 읽는 편이라서 읽기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지만, 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의 이해 능력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한국어 독서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48): 모든 것을 ‘아~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라고 다름에 대한 무서움보다도 ‘아~ 사람은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고, 아~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다 받아들이는 그런 스폰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자라면서 일본 엄마이기 때문에, 왕따(집단 따돌림)에 대한 걱정이 되어서 일본말보다는 한국말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한국말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생각하니깐 너무나 아이한테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어를 확실하게 심어주고, 그러면서 엄마하고 깊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애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요). 저는 TV를 거의 안봅니다. 라디오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클래식을 아침부터 계속 듣습니다. KBS, 아니면 MBC. 뉴스는 KBS1. (라디오 뉴스도 챙겨서 들으시나요?) 네, 이동 시간에. 그리고 신문은 중앙일보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일본 것 보기도 하고, 미국 것 보기도 하고...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서) 볼 때도 있고, 야후 JAPAN 들어가서 보기도 합니다. (중앙일보 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시어머니 결정이라서 어쩔 수 없이 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매체를 보고 있습니다. 매스컴의 힘이 참 중요한데... (일부러 논조가 다른 것들을 비교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죠.

위에서 살펴 본 3명은 ‘통합’의 유형이다. 이들 중 L을 제외하고는 TV 시청을 통해 드라마를 즐겨 보고 있었다. 또한 TV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뉴스를 시청하거나 다양한 기사를 검색해서 보고 있고, 종이신문은 보지 않았다. L은 TV는 보지 않지만 라디오를 통해 뉴스와 음악 등을 자주 듣고,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을 고르게 읽고 논조를 비교하는 비판적 읽기를 하고 있었다. 이들의 한국어 독서 효능감은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L의 경우 읽기 이해 능력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일본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변용 유형과 그에 따른 미디어 이용 양태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일본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변용 유형과 미디어 이용 양태

문화변용 유형		대상자	미디어 이용	독서 효능감
동화	완전한 동화주의자	A	TV, 종이신문, 인터넷 신문	낮음
		B	TV, 종이신문, 인터넷 신문	보통
	위장된 동화주의자	C	TV, 인터넷 신문	높음
		D	TV, 인터넷 신문	높음
		E	TV, 종이신문	높음
분리		F	일본 방송	낮음
		G	일본 방송, 인터넷 신문(일본)	보통
		H	일본 방송, 인터넷 신문(일본)	높음
		I	인터넷 신문(일본)	낮음
통합		J	TV, 인터넷 신문	보통
		K	TV, 인터넷 신문	보통
		L	라디오, 종이신문, 인터넷 신문	높음

‘동화’ 유형이 미디어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고령의 개별 변인을 가진 A를 제외하고는 한국어 독서 효능감이 보통이거나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위장된 동화주의자’의 경우 공통적으로 한국어 독서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유형과는 비교되는 결과이다. ‘분리’ 유형은 한국의 대중매체를 거의 접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며 일본의 미디어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4명 중 2명이 독서 효능감이 낮다고 응답하였는데, 다른 유형에서는 고령의 A 이외에 독서 효능감이 낮은 경우는 없었다. 또한 나머지 2명 중 독서 효능감이 높다고 응답한 사례자의 경우도 실제 읽기 능력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통합’ 유형에서는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한국 콘텐츠 이용 정도가 ‘동화’ 보다는 낮고 ‘분리’ 보다는 높은 특징을 보였다. 독서 효능감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통합’ 유형 중 L은 미디어 이용에 적극적 특징을 보였으며, 특히 신문 읽기에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었고 독서 효능감도 높게 나타났다.

2) 연구문제 2: 일본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변용 유형에 따른 읽기의 실제

앞에서 분석한 일본 결혼 이주 여성의 문화변용 유형에 따른 한국어 읽기 능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인터뷰에 제공된 사설을 읽고 첫째, 내용을 이해했는지, 둘째,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셋째,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어떠한지의 세 단계 읽기 능력을 분석하였다. 사설의 내용은 한국 사회의 이민

증가 추세와 그에 따른 대책으로써의 관리 체계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한국어 읽기 능력에 있어서 문화변용 유형별 미디어 접촉 정도와 신문 읽기의 정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우선 ‘동화’ 유형의 A, B, C, D, E는 국내의 신문을 매일 읽는 것으로 나타났고, ‘완전한 동화주의자’인 A와 B는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을 모두 읽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사설의 내용과 저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A의 경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령의 개별 변인으로 인하여 미디어 접촉 정도가 높고 신문 이용률이 높은 특징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읽기 능력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인터뷰에 제공된 사설을 읽을 때에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전에 몇 개의 단어를 통해 유추한 잘못된 글의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저자의 의도를 왜곡 설명하였다. 또한 글의 이해가 잘못되었기에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왜곡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 모습을 보였다.

A(55): (이민법을 통해) 외국인들을 한국에 걸맞게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얘기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이 아닌 한국 사람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해요). (이민자들을) 같은 이웃으로 받아들여야지, 사용하려고 받아들이는 것은 반대해요.

B의 경우도 글의 내용 이해나 저자 의도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전개하는 부분에서는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B(44): 모르는 단어 없었어요... 이 글은 다 이해해요. 한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가능한 많이 나왔으면... 그래야 인구가 부족하지 않고 (저자가 이야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C, D, E는 글의 내용 이해나 저자 의도 파악,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전개에도 문제가 없었다.

C(43): (저자가 말하려는 것은) 이민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제 생각은) 만약에 많이 받아들여려고 하면, 나라에서 해야 할 일도 많아요. 인성교육이나... 엄마가 외국인이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게 많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럴 때 커버할 수 있는 교육적인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심리치료 그런 거 받을 수 있도록.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이민법의 필요성도 동의하지만, 교육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입장)

D(35): 평소에 잘 안 쓰는 (말들이라 좀 어려워요). (저자의 주장은) 이민자를 늘려야 한국이 사는데, 그들 때문에 문제도 많으니까 조금 더 세심한 준비 하면서 조심하면서 가자. 이런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이민자가 너무 늘었어요, 옛날에 비하면... 너무 많아도 문제인 것 같아요, 혜택을 너무 많이 주고 (그러다보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45): 내용 알아요. 100% (이해했어요). (저의 생각은) 이민 장려가 (한국 상황) 타개의 한 방법인건

맞지만, 근본적 해결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민자를 보는 눈이 먼저... 시각이 먼저 변해야지... 그게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둘째, ‘분리’ 유형의 F, G, H, I는 국내의 신문을 거의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신문을 인터넷을 검색해 읽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어로 된 기사 등을 읽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들은 대부분 사설의 내용과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전개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었다. 특히 F의 경우는 읽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고 있었으며, 결국 사설 읽기도 포기하였다. 모르는 단어들이 대부분이고 글의 내용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글의 내용을 설명으로 들은 후에도 설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듣기 능력의 문제도 보이고 있었다.

F(45): 저출산, 고령화...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라 300만 명 필요하다는 것 ~~만~~ 알아 전혀 ~~모~~라 (내용 이해 전혀 못하므로 설명 한 후 견해를 물음) 중국 사람이 너무 많아. 나는 성격이 힘들어. 한국 사람도 힘든데, 중국 사람이 더 힘들어. 중국인이 원래 많으니까 할 수 없는데, 필리핀. 일본 원래 적어서 할 수 없는데, 중국이 너무 많아요.

G와 H는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G는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 전개를 하지 못하였고, H는 왜곡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특히 H는 한국어 독서 효능감이 높다고 응답하였지만, 읽기에서의 내용 이해력이나 저자의 의도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읽기 능력은 낮게 나타났다.

G(40): 모르는 단어도 있긴 한데 대충 이해했어요. 그래도 한국어가 일본어랑 어순이 비슷해서 (이해하기 쉬운 편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온 엄마들(이주 여성들)보다는 일본 엄마가 (한국어를 읽는) 속도나 이해가 더 잘할 거예요. (사설의 내용은) 이민자가 더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뭔가 더... 데려와야 한다? 뭐 그런거 같아요. (본인의 견해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옳다고... (저자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미).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H(42): 한국의 미래는 이주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겠다. 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아이를 출산해야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만 들으면 한국인이 외국인들을 데리고 무언가 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민자들을 필요에 의해 이용한다고 있다고 느끼셨어요?) 그런 시각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본인의 견해는?) 그냥 오는 사람(이민자)도 받는 사람(내국인)도 이익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게 조금 안타깝다... 제가 아는 친구들은 다 사정이 있어요. 만약에 사정 없었다면 안 올 수도 있어요.

‘분리’ 유형 중 I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일본 소식들을 접하는 편이지만, 한국 포털사이트 검색도 하루 5분 ~ 10분 정도 불규칙하게 한다고 하였다. 한국의 방송을 접하거나 신문 등을 읽는 시간은 거의 없지만, 책 읽기를 좋아해서 일본책이나 한국책 등을 많이 읽는다

고 한다. 책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읽는 편인데, ‘분리’ 유형이면서도 책읽기를 통해 한국어 읽기 능력이 높아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I(41): 저는 읽는게 좀... 천천히 느리게 (읽어요). 이해하는 것도 뭐 그렇게 (잘 하지는 않아요). (이 글에서) 모르는 단어는 없어요... 내용 이해도 (다 되었어요). 모르는 단어가 좀 나와도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저자의 생각은) 이민자를 이 나라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본인의 견해는?) 이민자만 받는다고,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민 장려가 인구 감소의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 이민자가 늘어나고 출산율은 자꾸 더 떨어질 것이고... 이것은 어디나, 비슷하게, 더 심해질텐데... 한국 안에서 대응하는 방법(해결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셋째, ‘통합’ 유형의 J, K, L은 미디어 이용 양태와 한국어 읽기 능력에 있어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졌다. 먼저 J, K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자주 보지만 신문 읽기의 정도는 낮은 편이다. 일주일에 두 세 번 인터넷 검색을 하는 정도이며, 종이신문을 읽지 않고 인터넷 신문 기사 등도 거의 읽지 않는 편이다. 사실의 내용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를 통해 저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J는 사실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전개하지 못하였고, K는 저자의 주장과 다른 관점의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J(36): (모르는 단어는) 수혈, 홍역? 약간 법률이니 뭐니 이런 부분이 약간 익숙하지가 않아서 쪽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사실의 내용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민자를 6%정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유럽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저자의 의도는)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을 오시게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 나라의 한국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도움도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건가? (명확히 자신의 견해를 전개하지는 못함).

K(48): (저자의 의도는) 한국이 저출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고령화 시대가 올 것 같아서 국민 중에 젊은이들이 없어질 것 같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선진국 유럽이나 그런 국가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 (본인의 견해는?) 제가 지금 대학을 다니는데... (배우는 교과목 중에) 다문화가정 관련된 문제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70%가 통일교를 통해서 오는데,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노동을 위해서 돈 벌려고 온다는 이야기가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국을 찾아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면 이것도 그만큼 부담이 많아질 수도...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합’ 유형 중 L은 매일 라디오를 통해 클래식 음악 방송과 뉴스를 청취하는 시간이 길

다. 또한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을 다양하게 읽으며 한 방향의 논조에 치우치지 않으려 균형을 잡는다고 이야기하여, 평소 비판적 읽기를 연습하며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설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요약 능력이 좋으며, 저자의 의도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동의하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L(48): 모르는 단어는... 수혈이 뭐죠? 그것 말고는 다 이해한 것 같습니다. (한국어 읽기 이해 능력에 대해서) 언어라는 것이 문화를 이해를 해야...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다른 분보다 조금, 아무래도 어르신과 있기 때문에 폭넓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설의 내용은) 인구가 적어지니까 노동력이나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외국인 이주민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밑글은 그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그들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일 때 문제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견해는?) 그 부분에서 물론 인구가 많아야 국가에 힘이 되니까, 그것도 인적자원으로써 힘이 되니까, 그들을 잘 키워내서... 민족자원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같이 살아갈 사회를 만든다면 그 사람들의 정책은 꼭 필요할 것이고... (저자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견해).

<표 4> 일본 결혼이주 여성의 신문 읽기 양태와 읽기 능력

문화변용 유형		대상자	신문 읽기(국내)	빈도	읽기의 실제
동화	완전한 동화 주의자	A	종이신문 인터넷 신문	매일	· 내용 이해 : 전혀 못함 · 저자 의도 : 왜곡된 이해 · 왜곡된 이해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 피력
		B	종이신문 인터넷 신문	매일	· 내용 이해 : 이해 · 저자 의도 : 이해 · 이해와 별개로 어긋난 방향의 견해 피력
	위장된 동화 주의자	C	인터넷 신문	매일	· 내용 이해 : 이해 · 저자 의도 : 이해 · 저자와 다른 관점의 자신의 견해 전개
		D	인터넷 신문	매일	· 내용 이해 : 이해 · 저자 의도 : 이해 · 내용 이해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 피력
		E	종이신문	매일	· 내용 이해 : 이해 · 저자 의도 : 이해 · 저자와 다른 관점의 자신의 견해 전개
분리		F	·	·	· 내용 이해 : 전혀 못함 · 저자 의도 : 전혀 파악하지 못함 · 자신의 견해 피력 포기
		G	·	·	· 내용 이해 : 이해 · 저자 의도 : 왜곡된 이해 · 자신의 견해 전개 못함
		H	·	·	· 내용 이해 : 왜곡된 이해 · 저자 의도 : 왜곡된 이해 · 왜곡된 이해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 피력
		I	·	·	· 내용 이해 : 이해 · 저자 의도 : 이해 · 저자와 다른 관점의 자신의 견해 전개
통합		J	인터넷 신문	일주일 2~3번	· 내용 이해 : 이해 · 저자 의도 : 이해 못함 · 자신의 견해 전개 못함
		K	인터넷 신문	일주일 2~3번	· 내용 이해 : 이해 · 저자 의도 : 이해 못함 · 저자와 다른 관점의 자신의 견해 전개
		L	종이신문 인터넷 신문	매일	· 내용 이해 : 이해 · 저자 의도 : 이해 · 내용 이해 바탕으로 저자 주장에 동의

일본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변용 유형에 따른 신문 읽기 양태와 신문 사설을 통한 읽기 능력 분석

에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매일 신문 읽기를 하고 있는 ‘동화’ 유형의 경우 고령이라는 개별 변인을 가진 A를 제외하고는 내용의 이해와 저자 의도 파악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다. ‘통합’ 유형의 경우 매일 신문 읽기를 하는 L은 내용 이해와 저자 의도 파악, 자신의 견해 피력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신문 읽기의 빈도가 낮은 J와 K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분리’ 유형인데, 이 유형의 일본 결혼이주 여성들이 한국 문화와의 접촉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읽기 능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신문을 거의 읽지 않는 F, G, H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모두 어려움을 보였다. 또한 저자의 의도를 왜곡하여 이해하려는 경향성도 보이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결과는 통합유형과 분리유형사이의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미디어 이용 양태에 있어서도 분리유형의 이주민들은 매우 소극적이며, 한국어 독서 효능감도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동화유형은 높은 독서효능감과 적극적인 미디어 이용이 두드러진다. 특히, 통합은 동화 보다는 낮으나 분리보다 월등히 높은 독서 효능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비판적 읽기 차원에서 살펴보면, 통합유형에서 비판적 읽기가 두드러지며 분리유형에서는 읽기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가 보여주는 문화적응유형별 비판적 읽기의 차이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이 맥락을 담보하는 비판적 읽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진되어야 한다는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다문화주의 사회통합은 이주민의 고유문화와 이민사회의 주류문화가 공존하는 사회통합이다. 따라서 이민사회의 주류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보다 능동적인 읽기가 가능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민사회의 맥락을 이해하고 주류담론의 행간을 메꾸어가는 작업이 가능한 읽기 프로그램이 제공될 때, 이주민의 다문화주의 사회통합이 보다 원활할 것이다. 비판적 읽기를 통하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자신의 경험이라는 맥락 안에 안치시키고 재구성하는 담론구성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는 이주민에 대한 읽기교육이 더 이상 단순 생활양식의 동화를 위한 도구로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 사회의 시민으로 이주민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권복순(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1(2), pp.5-32.
- 김석란(2008) 「한국사회적응프로그램과 일본여성의 한국생활관」 『일어일문학』 40권, 205p ~ 223p.
- 박소라(2008) 「이민 2세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정체성과 문화적응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2권6호 pp.237-257
- 박정의 외(2013) 「재미 한인의 삶의 만족감과 문화변용」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9권, pp.7-37.
- 이수범 외(2009)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스피치와커뮤니케이션』 11, pp.47-79
- 조용만 외(2013) 「국제결혼이민자의 조기 사회통합증진 방안연구」 『국제정치논총』 제53집3호, pp.465 - 502
- 조창환 외(2010)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친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언론학보』 제54권4호2010.8, pp.74-397 .

Amit, K.(2009),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immigrants from western countries and from the FSU in Isra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pp.1-20

Ataca, B., and Berry, J.W(2002), Psychological, Sociocultural, and Marital Adaptation of Turkish Immigrant Coupl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7(1), pp.13-26

Berry, J. W.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Brislin, R.(eds.).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pp. 232-253

Berry, J. W.(1997).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pp.5-68